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방안

교육 · 데이터 · 지역 · 기본 4종을 연결한 국가운영체계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

국민경제자문회의 · KDI 공동 컨퍼런스
2026. 8. 31

핵심 명제: 기술보다 연결

AI 시대 성장잠재력 회복은 “AI 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 문제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인재 · 수요 · 데이터 · 지역을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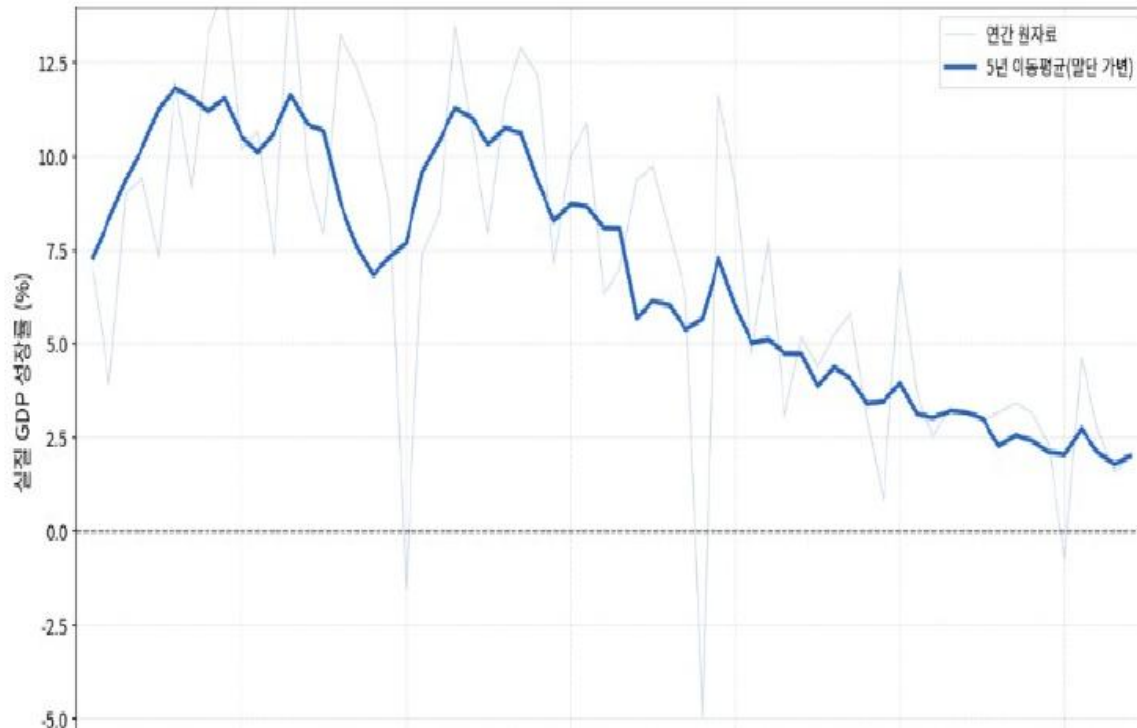
오늘의 흐름

- 성장둔화와 AI 충격: 왜 지금 국가잠재력인가
- 교육·평생학습·수요 확산: 사람을 키우고 현장으로 연결
- 국가데이터처: 데이터·측정·평가의 공통 인프라
- 기본 4종: 자립을 먼저 돕고, 남는 위험을 정밀하게 보완
- UBI의 불가능한 삼위일체와 지역화폐형 타게팅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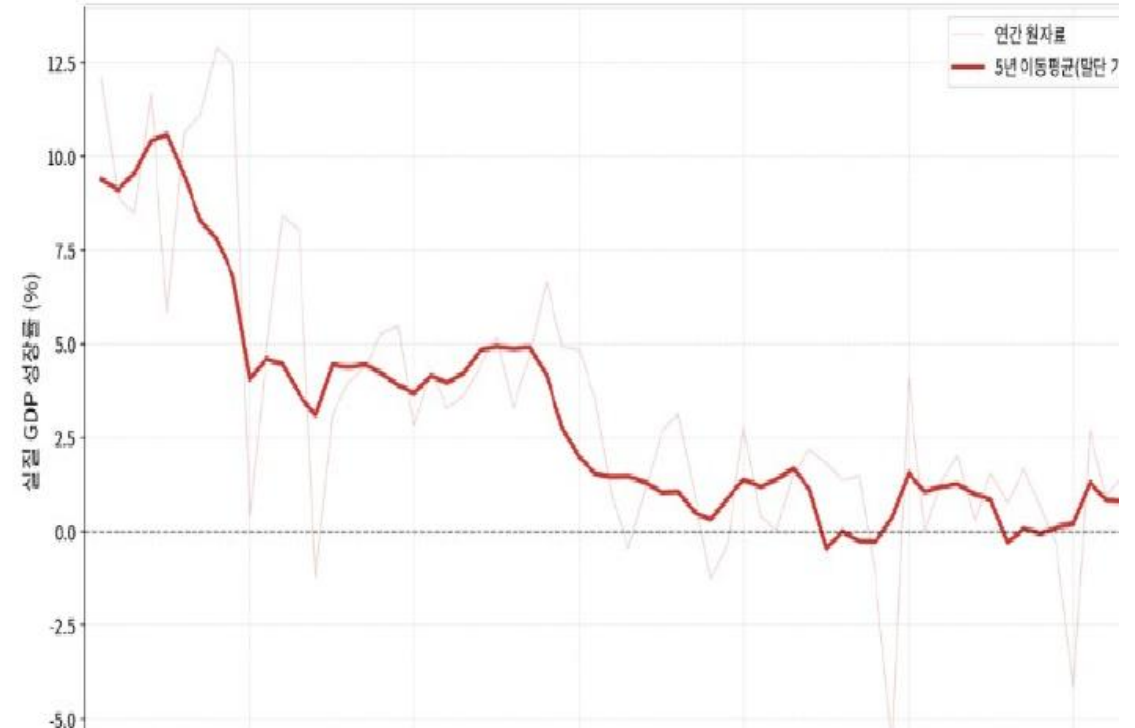
왜 지금 성장잠재력인가

한국의 성장경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경험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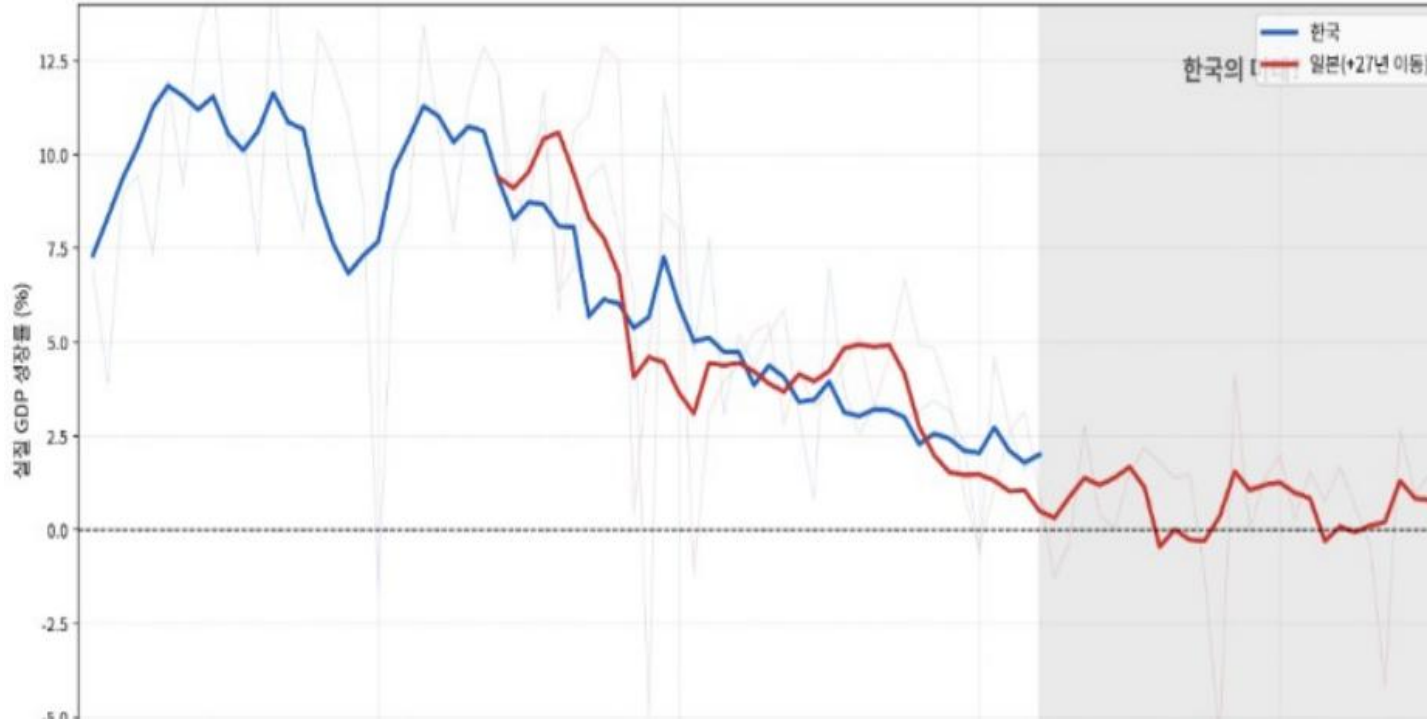


핵심은 과거 성장모델의 연장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영체제입니다.

다음 30년의 선택

성장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대응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 일본의 27년 선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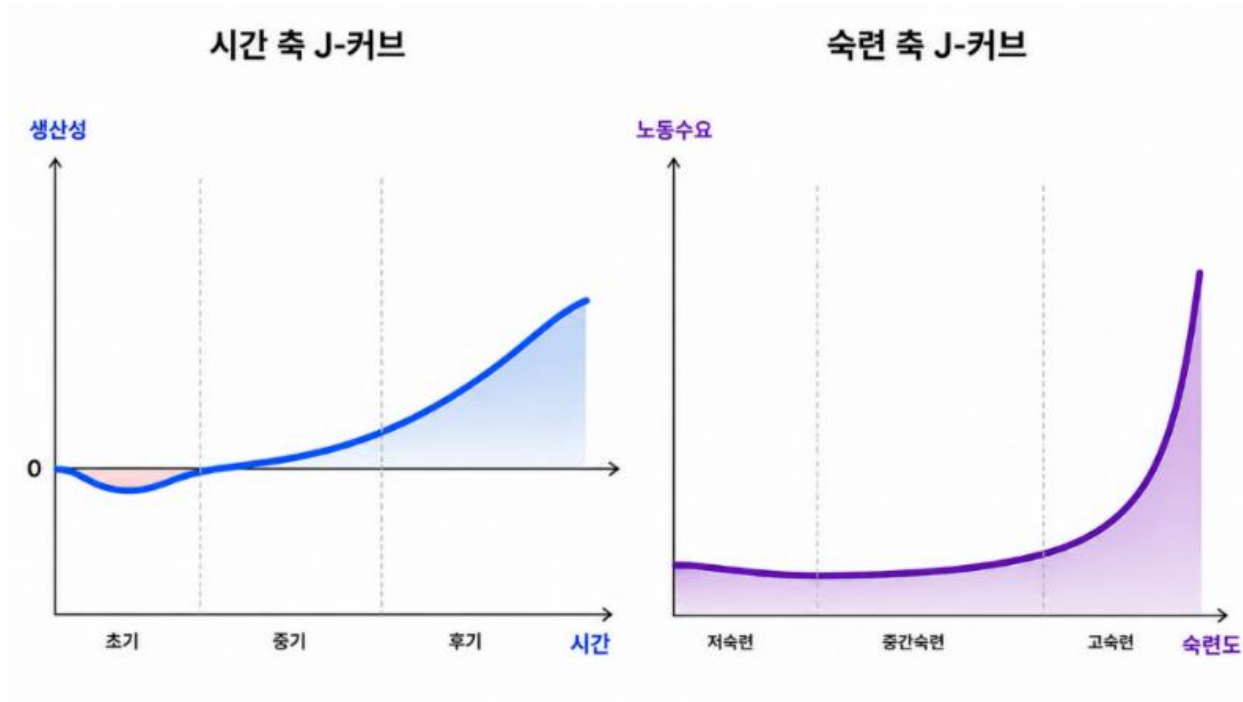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30년

SI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문제는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수요 재편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입니다.

AI 시대: 두 개의 J-Curve

서로 다른 가로축, 서로 닮은 J-커브



시간축 J-Curve

초기 혼란과 전환비용을 지나
조직 학습 후 생산성 상승

숙련축 J-Curve

중간숙련층의 노동수요는 큰 압박 받음,
문제정의·목표설정·AI 활용 역량 수요는 급상승

따라서 정책은 소득보전만이 아니라 재교육·전환훈련·노동이동 지원까지 묶어야 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의 연결

개별로는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변화도 결합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노동공급 감소

AI 충격

저·중숙련 노동 대체
노동수요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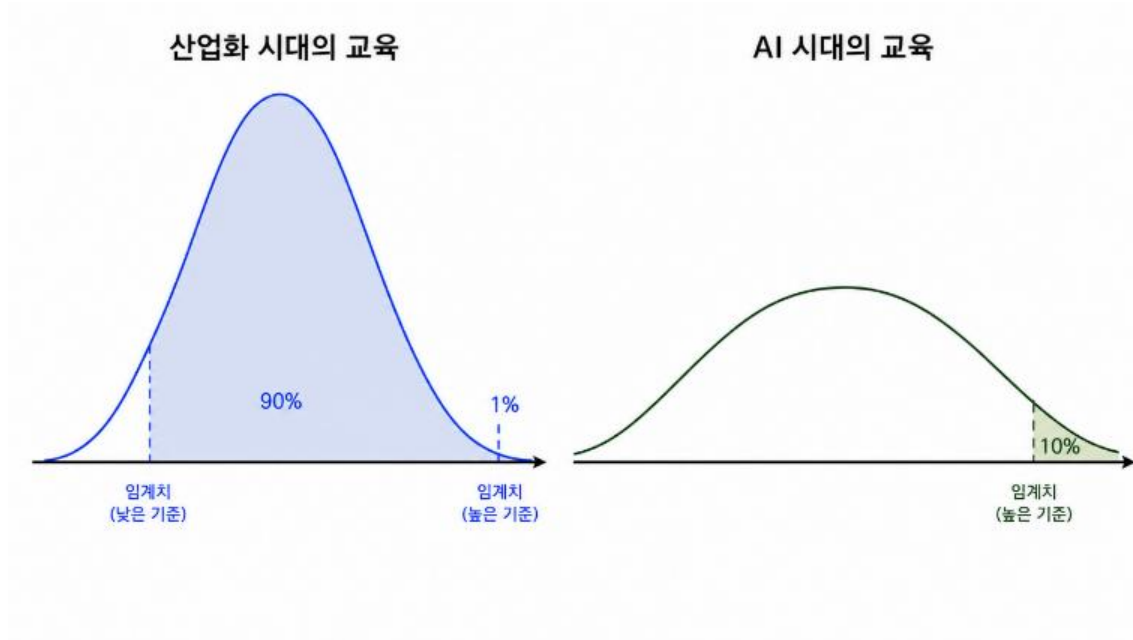
정책 과제

사람을 보호하되
역량과 이동성을 키움

국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역량과 이동성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와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평균 성취를 올리는 교육에서, 개인별 강점과 질문을 키우는 교육으로.



과거의 질문

“평균 성취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AI 시대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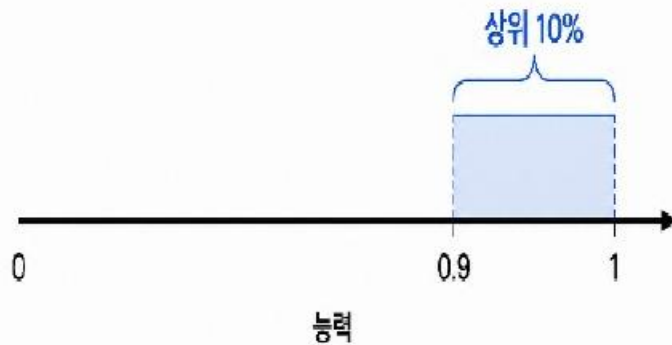
“문제를 정의하고, 결합하고,
새로 만들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답 소비자에서 질문 생산자로: AI 시대 교육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선택과 집중, 더 많은 축, 더 많은 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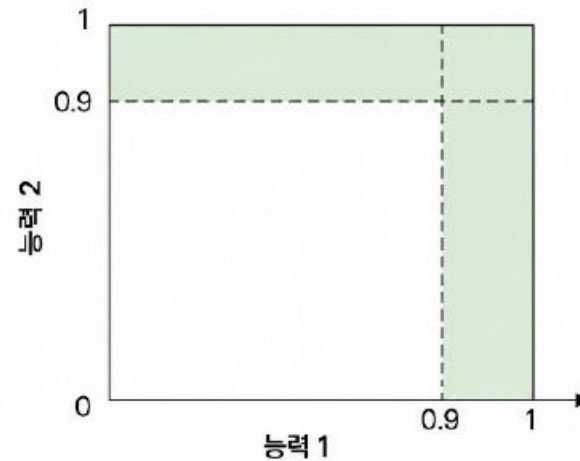
능력의 차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승자가 배출됩니다.

하나의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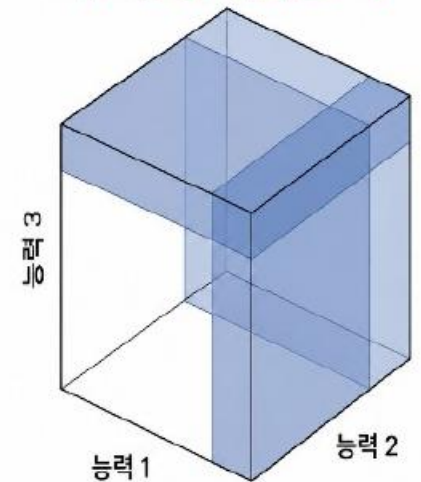
승자의 비율 = $10\% = 1 - 0.9$

두 개의 독립인 축



승자의 비율 = $19\% = 1 - 0.9^2$

세 개의 독립인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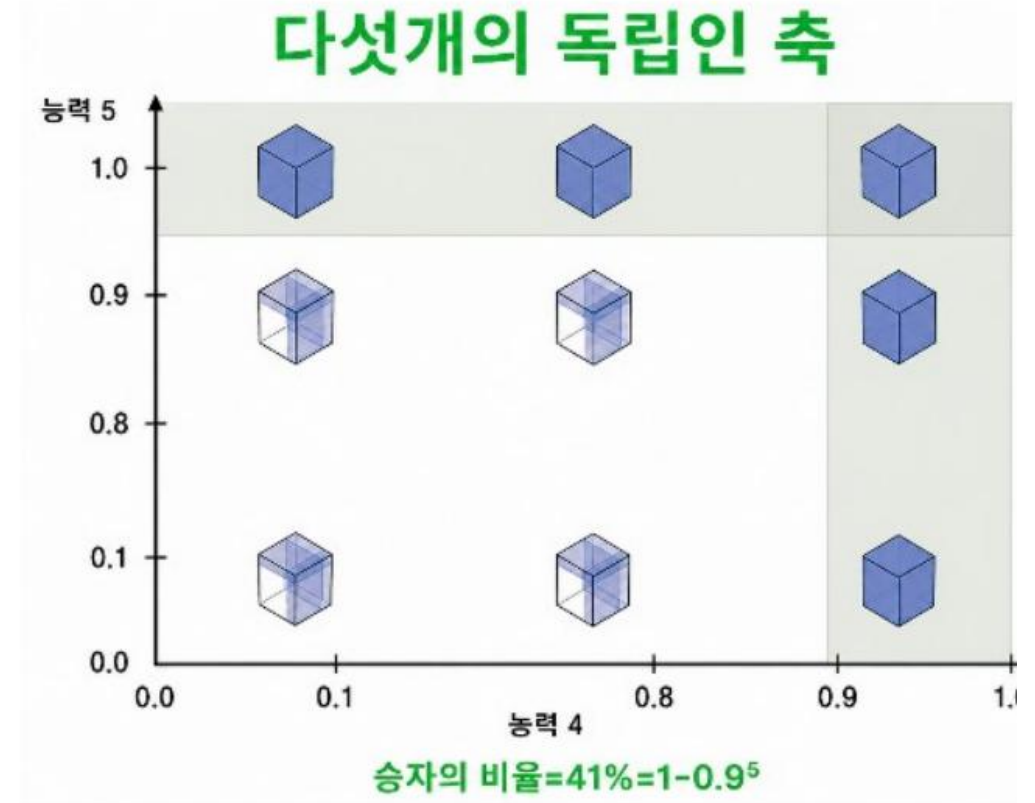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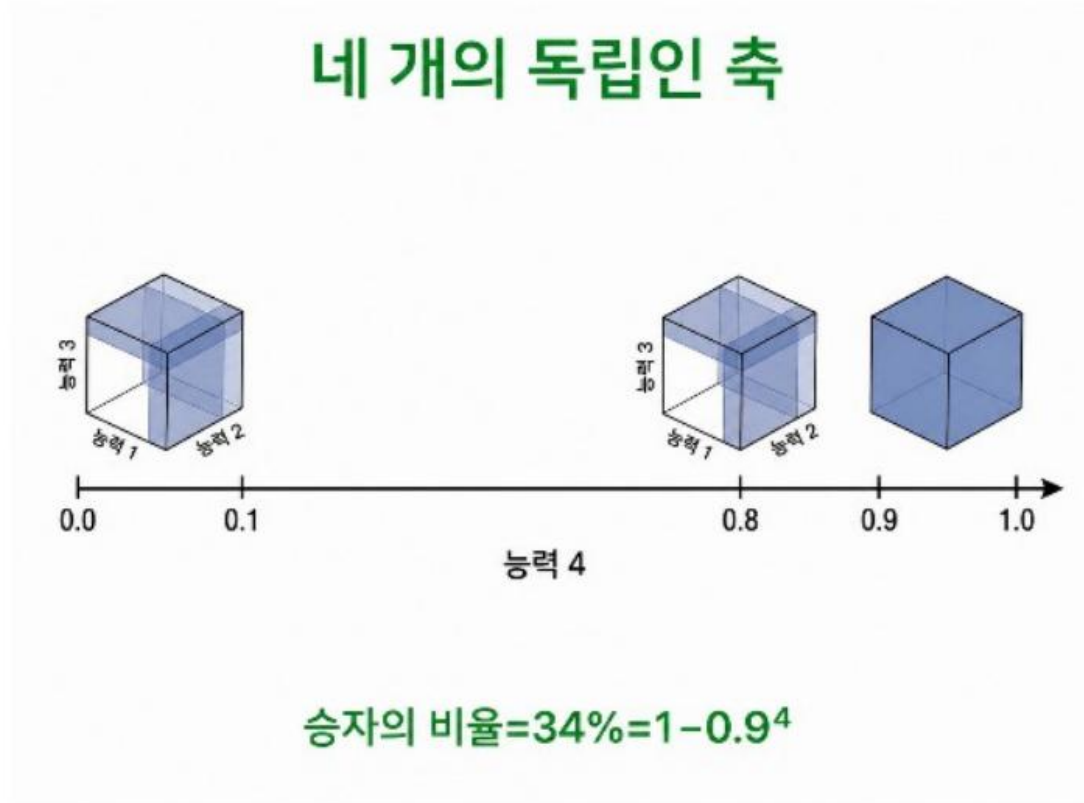


승자의 비율 = $27\% = 1 - 0.9^3$

다양성은 생산성입니다.

다양성은 자존감이자 생산성입니다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찾게 해주는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더 많은 축에서 더 많은 승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 모델: Gallery-Curator로 전환

학생은 정답 소비자가 아니라 질문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수

지식 전달자

큐레이터

학생

표준 경로

맞춤형 학습경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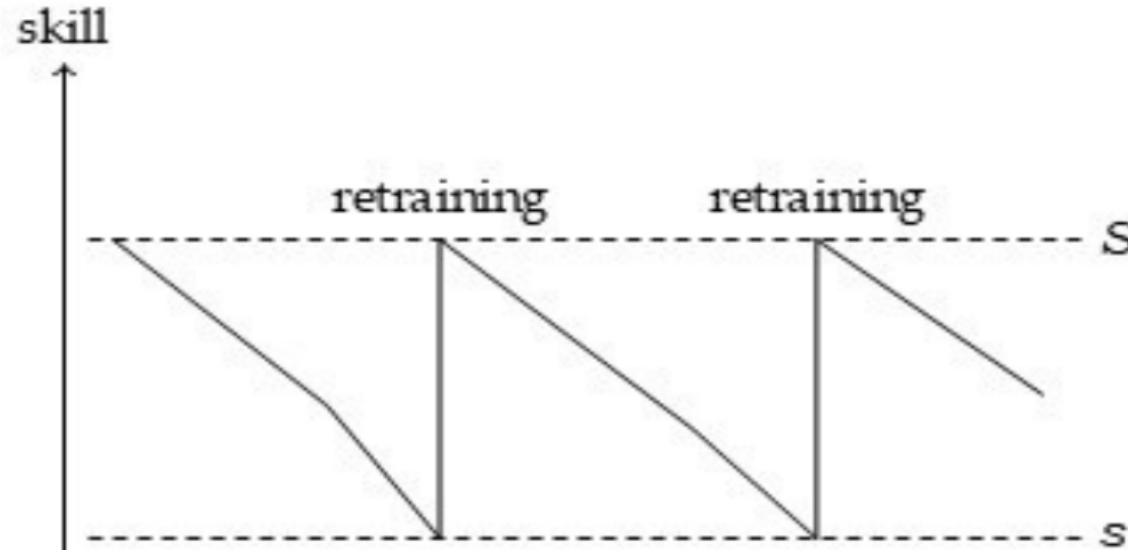
강의 중심

프로젝트 · 문제해결

대학은 일회성 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재학습의 열린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s,S)형 평생교육: Learning State

인적자본도 재고처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반복적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 AI는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속도를 높입니다.
- 역량이 s 이하로 하락하면 재교육을 통해 S 까지 회복합니다.
- 청년 교육·재직자 전환훈련·CEO 교육·지역대학 혁신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습니다.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BS·ABC: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혁신

AI 인재는 공급만으로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현장의 수요 창출 역량이 함께 커져야 합니다.

ABS

AI BigData Specialist

청년 대상 · 7개월 · 1,040시간

산업연계 캡스톤

ABC

AI BigData CEO

CEO·임원 대상 · 6개월 · 156시간

AI 활용 전략과 문제정의

핵심은 연결

청년 ↔ 기업

교육 ↔ 산업

공급 ↔ 수요

AI 전환에는 Big Model뿐만 아니라 Big Demand가 필요합니다.

Big Demand: AI의 현장 확산 없이는 생산성 혁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AI 활용 역량은 대기업·수도권·연구실 밖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야 합니다.

- 기업 현장의 문제를 AI 과제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EO와 임원의 AI 수요 창출 역량이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 공공부문은 구매자·실험장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지역·중소기업까지 확산돼야 지방도 살고 청년도 삽니다.

Big Model 경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Big Demand를 전국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소버린 AI: “3위”는 기수가 아니라 서수입니다

모델 하나하나의 순위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공급과 수요를 아우르는 시스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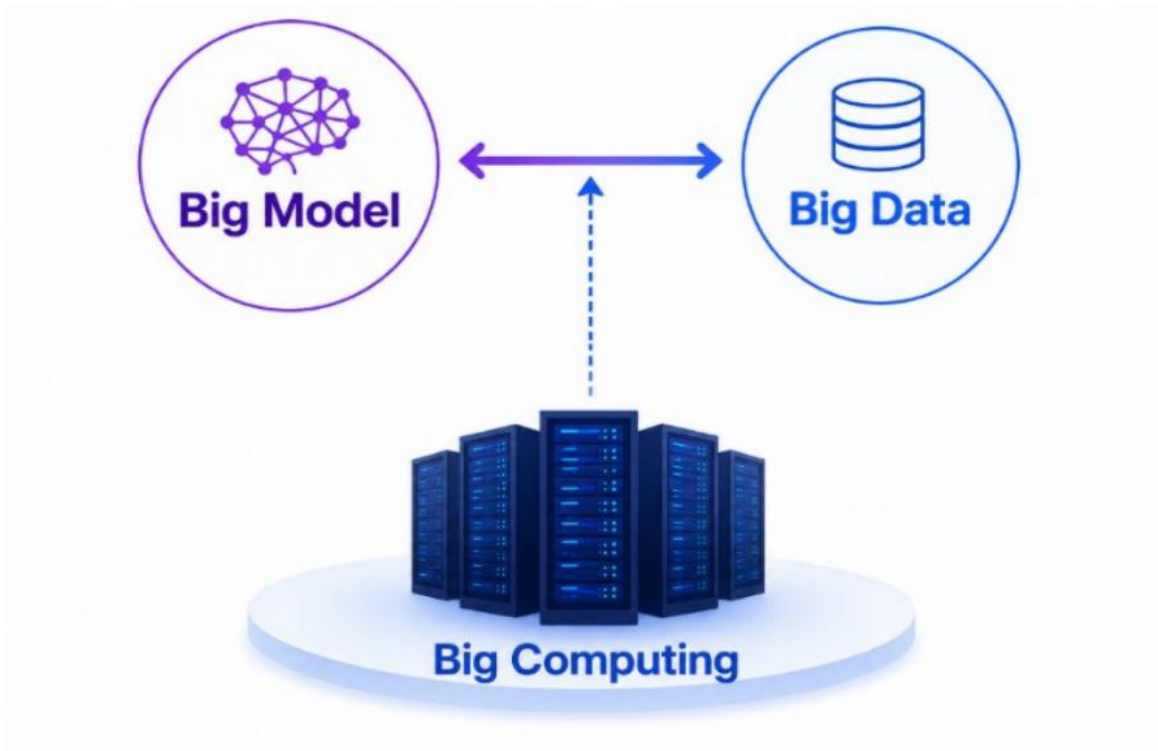


-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AI 주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 진정한 AI 강국은 모델·데이터·컴퓨팅을 결합해 AI를 가장 잘 쓰는 국가입니다.
- 한국의 승부처는 산업화·확산·현장 적용 역량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델 순위 경쟁 → 시스템 경쟁으로 전환

AI 3대 축을 Big Application으로 연결

모델·데이터·컴퓨팅은 현장 확산으로 이어질 때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됩니다.



- Big Model: 고성능 모델과 특화모델 개발·개량
- Big Data: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활용
- Big Computing: 학습·추론·검증 인프라
- Big Application: 제조·의료·교육·금융·행정·지역으로 확산

AI 주권의 본질은 “차단에도 작동하는 회복탄력성”과 “전국적 확산 능력”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성장정책의 새로운 인프라

연결된 문제를 풀려면 연결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연계 기반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 기업통계등록부
- 지역·공간 데이터
- 연계된 소득·자산·고용·연금·복지 등 데이터

운영 원칙

- 집행과 측정의 분리
-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제3자가 측정·평가
- 안전한 데이터 연계
- 정책의 사전 시뮬레이션과 사후 평가
- 정밀한 복지·조세·산업·고용 분석

국가데이터처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기본 4종: 국가의 기본체계를 다시 세웁니다

정확히 연결하고, 같은 잣대로 재며, 스스로 설 역량을 키우고, 그래도 남는 위험을 두텁게 보완합니다.

기본 데이터

통계등록부 중심
연계 인프라

기본 측정

개인화 단일
통합소득지표

기본 훈련·기본 정책

생애주기 반복
직업훈련, 주택연금

기본 구제

Targeted Basic Income,
최후의 국가 안전망

먼저 정확히 연결하고, 같은 잣대로 재며, 스스로 설 역량을 키우고, 남는 위험을 집중 보완합니다.

기본 데이터와 기본 측정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된 데이터가 보여주는 취약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본 데이터

- 개인·가구: 인구, 교육, 고용, 소득, 자산, 주거, 복지, 연금
- 기업·사업체: 매출, 투자, 고용, 정부지원, 특허, 수출입, 에너지
- 국가데이터처 중심의 표준화·연계·품질관리

기본 측정

- 시장소득 + 공적이전 – 조세·사회보험료 + 자산의 잠재 소득흐름
- 가구 단위 통합소득 $\div \sqrt{\text{가구원 수}} = \text{균등화 통합소득}$
- 정책 전후에 걸친 분배효과를 같은 잣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잣대로 재야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같은 잣대로 재야 정책 간 의미 있는 비교평가가 가능합니다.

기본 훈련·기본 실행·정밀 지원

현금 이전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립 경로를 열고, 남는 위험을 정밀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본 훈련

- 청년·재직자·중장년을 잇는 (s,S)형 반복훈련
- ABS·ABC처럼 인재 공급과 기업 수요를 함께 육성
- 지역대학을 평생학습·전환훈련 플랫폼으로 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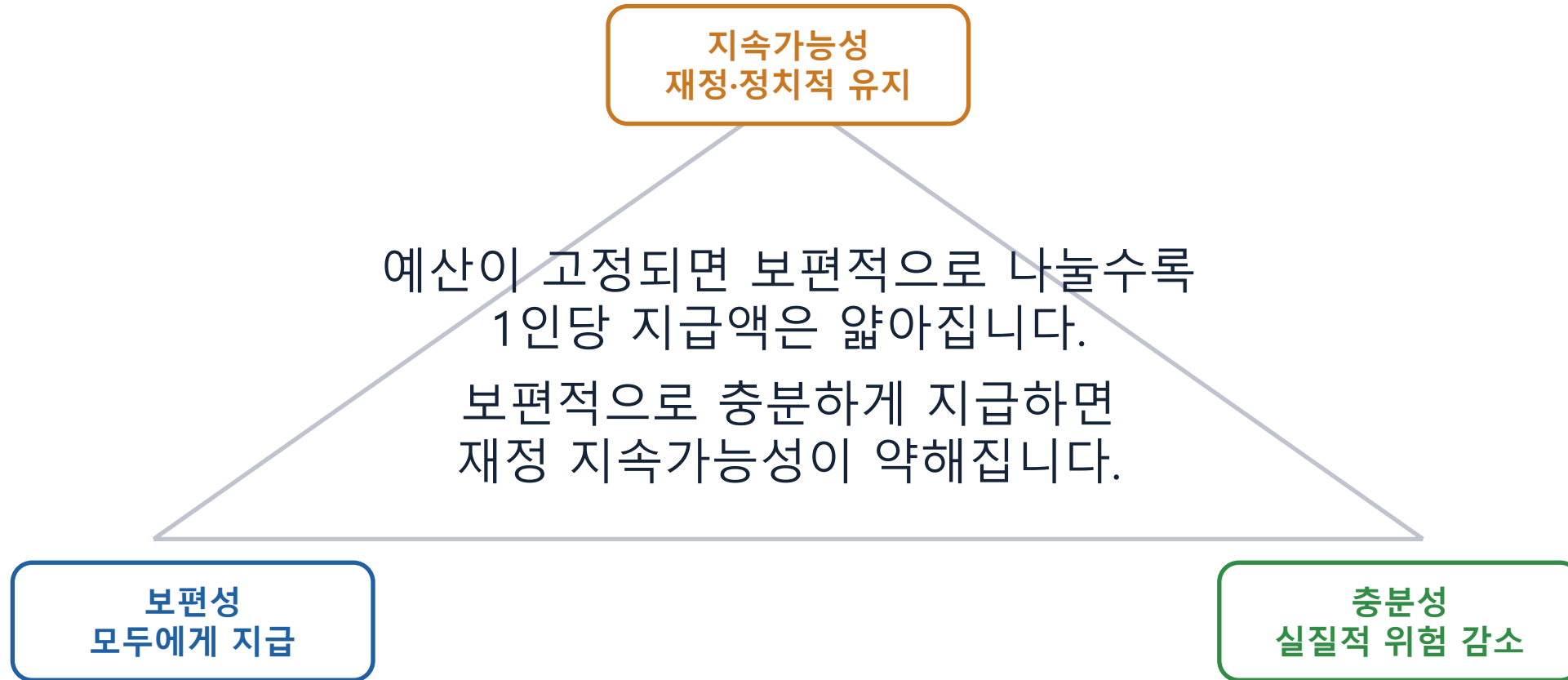
기본 정책

- 주택연금으로 house rich, cash poor 계층의 유동성 갭 완화
- 소멸지역·청년·취약층에 재정여력을 집중
- 현 정부의 소멸대상 지역화폐 지급도 크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타게팅, 지역 안에서는 보편성"을 결합한 설계
- 기본소득형 현금지원은 예산제약과 충분성을 고려해 targeted safety net으로 설계

훈련과 주택연금 활성화로 자립 역량을 먼저 키우고, 남는 위험은 두텁고 정밀하게 보완합니다.

UBI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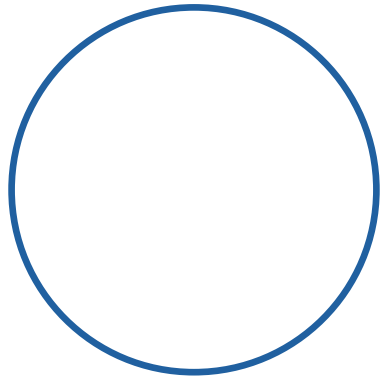
보편성 · 충분성 ·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보해야 할 것은 “취지”가 아니라 “무조건적 보편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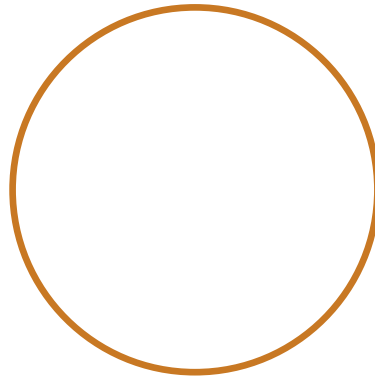
보편성의 재설계: Globally Targeted, Locally Universal

소멸대상 지역화폐 지급은 넓은 의미에서 이미 타게팅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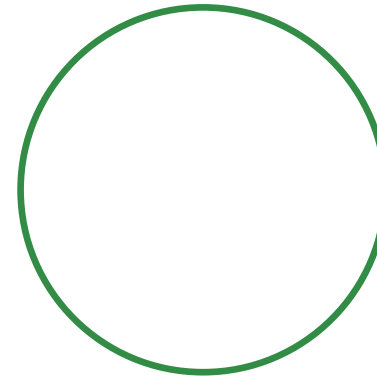
전국

모든 국민에게
동일 지급 아님



소멸위험 지역 선별

전국적으로는
targeting



지역 안 보편 지급

선별된 공동체 안에서는
universal

정책적 의미 지역 · 가구 · 개인 단위의 타게팅을 기본 데이터와 기본 측정으로 더 정교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전형적 UBI라기보다 “targeted basic income”의 지역형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합 운영체제: 성장과 포용은 별개가 아닙니다

교육·AI 확산·데이터·기본 4종을 하나의 사이클로 묶어야 합니다.

인재

교육혁신
평생학습

수요

기업·공공·지역
AI 문제정의

실행

기본 4종
정밀 안전망

데이터

국가데이터처
정책효과 측정

성장은 사람을 키우고, 포용은 누구나 다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무리: 사람을 키우는 국가 운영체제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을 위한 최종 메시지

기술은 수단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 지방이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어야 국가가 있습니다.
- 정확히 또 안전하게 연결하고, 동일한 잣대로 재고, 스스로 설 능력을 키워 줍니다. 그러고도 남는 위험은 집중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수요·데이터·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시스템 혁신입니다.